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5.11+ 12
Vol. 181



Merry Christmas!



10월 04일은 우리 모두가 天使 되는 날



당신이 천사입니다!

지난 10월 4일 23번째 맞는 천사의 날 행사를 마치고 밀려오는 감동과 더불어 옛 생각이 절로 나서 한숨 못 자고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475,000원!!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청량리 뒷골목 남들에게 죄인들이라 손가락질 받는 직업여성들이 모아준 475,000원을 시작으로 동전 100원부터 100만원까지 후원하는 1004명을 모으는 천사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모아 주신 성금을 통해 2002년 10월 4일 다일천사병원이 개원되었습니다.

병원이 지어지기까지 함께 해주신 천사들이 있었고 또한 다일천사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정기후원으로 1만원, 2만원씩을 기부하여 주신 만사회원이 모여져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다일은 큰 것이 성공이라는 세상의 생각과 다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정신이 다일의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함께 하여주시는 분들이 바로 후원회원님들 이신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후원회원님들께 찾아가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일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다일의 사역을 위하여 매달 1만원씩, 2만원씩 그리고 아동결연으로 3만원씩 후원하며 지금부터 나부터 실천하는 당신이 있으니 힘이 납니다!

당신이 천사입니다!!^^

작은 형제, **천**인드 불림

CONTENTS

02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

07

폼다일, 일대일 해외아동결연

08

행복의 비밀, 나눔

11

롬웠다 변화이야기

12

밥퍼를 부탁해 - 캄보디아편

14

거리성탄예배

16

밥퍼봉사소감문

19

마음을 위로해주는 시

20

국내외 현장이야기

32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c.o.v.e.r.s.t.o.r.y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한 아동의 삶이 건강해지고 꿈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것. 후원이 끝나도 아동이 계속해서 발전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 나아가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더 넓게 확장되는 것. 이것이 다일공동체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만남

김민주 다일복지재단 후원관리실 간사



>> 아동의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중인 다일스텝



후원회원과 아동이 일대일 결연을 맺게 되면 아동은 영양, 보건·위생, 교육 등 아동이 속해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다양한 자원과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한 아동의 삶이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곳곳에 아름답고 따뜻한 가치를 선물하는 '일대일 해외아동결연'.

따뜻한 밥과 꿈을 나누는 아름다운 동행이 날마다 더해져 보다 많은 아동과 후원회원님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져가길 소망합니다.

한 아동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자 아름다운 동행, '푸드일, 해외아동결연'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3만원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다일공동체 해외아동결연

매일 밥 짓는 냄새, 왁자지껄 아이들의 웃음소리, 밝게 뛰노는 아이들의 희망찬 발소리, 이 세 박자가 한데 어우러지는 곳이 다일공동체의 해외사역지입니다. 하루의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일 수도 있는 밥을 먹기 위해 어린 동생을 안고 밥퍼를 찾아오는 아이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노동하는 아이들을 위해 다일공동체는 2009년부터 해외아동결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3만원의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아이들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걸을 다니거나 일을 찾아 다니는 대신에 학교에서 연필을 들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 의사, 군인 등 동일했던 꿈 또한 파일럿, 디자이너, NGO직원 등과 같이 다양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후원회원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다일공동체는 보다 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을 채워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경험하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미술시간에 색칠공부를 하는 모습

내가 만난 아이

*어떤 아동들이 결연후원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아동을 선정하는 조건이 있나요?

아동결연 후원 중이시거나 후원을 고려해 보신적이 있다면 결연 대상이 되는 아동의 선정 조건이 어떤지 한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것입니다.

결연후원 대상이 되는 아동은 기본적으로 다일공동체 해외본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결손가정의 아동, 가정형편이 어려워 취학 연령임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동, 질병 또는 영양실조가 있는 아동 등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입니다.

아동에게 후원회원님의 만남은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보호와 권리를 되찾게 하며,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아동의 삶

결연후원으로 전하는 후원회원님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통하여 아동은 밥퍼와 빵퍼의 무상급식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쌀, 식용유 등의 식료품으로 영양 상태를 유지 및 개선해 나갈 수 있게



>> 다일진지기도를 하고 있는 아이들

됩니다. 더불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복, 책가방, 학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동이 빈곤을 되물림 받지 않고, 학업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일공동체에서는 유치원 및 호프스쿨(대안학교)을 운영하여 기초교육의 질과 고등 교육으로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만남, 이어가기

아동결연 후원신청을 해주신 후원회원님께서는 2주 이내로 결연아동 소개서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연말에는 한 해 동안 아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아동발달보고서를 보내드리는데, 아동결연 후원을 시작하지 1년 미만인 후원회원님께서는 아동발달보고서 대신 아동편지 또는 손 그림이 포함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님과 아동은 다양한 교류를 통해 그 특별한 만남을 더욱 깊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먼저 다가가 주신다면 아동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그 작은 관심으로 아동에게 큰 힘을 더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맺어진 인연을 특별한 인연으로 가꾸어나갈 과정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립니다.

결연활동 하나, 편지쓰기

결연 후, 우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에게 편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다일복지재단으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등록해주시면 각 해외분원으로 전달되어 다일공동체 직원 또는 봉사자에 의해 현지어로 번역됩니다. 번역 과정을 거친 편지는 현지 아동결연 담당자를 통해 아동에게 직접 전달되는데, 아동이 고향 방문 등으로 오랜 기간 부재시에는 편지가 전달되는 시간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아동의 답장편지는 아동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번역과 전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어 4~6개월 내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연활동 둘, 선물하기

선물금 제도를 통해 아동에게 선물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선물을 직접 해외로 발송하는 경우, 비싼 송금

비용과 복잡한 통관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고, 배송과정에서 분실 및 파손의 위험이 있어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결연아동 또는 아동의 가족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현지에서 구입하여 전달하는 선물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물금 제도를 이용해주시면 아동이 더 쉽고 빠르게 후원회원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금의 종류는 자전거와 같은 아동 개인을 위한 선물, 쌀과 같이 아동과 아동의 가족을 위한 선물, 우물 설치와 같이 후원 아동이 속해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한 선물 등으로 다양합니다. 해외분원에서 아동에게 선물이 전달되면, 선물 전달사진과 결연아동 또는 가족의 감사편지를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연활동 셋, 방문하기

결연아동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인 다일비전트립을 통해서 결연아동과 만날 수 있습니다. 결연아동의 다일공동체 해외분원과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생활하는 환경을 직접보고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원회원님 개인으로도 현지를 방문하시어 아동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방문일 2~3개월 전에 신청하시면 현지에 협조를 요청하고, 현지 담당자분의 메일과 연락처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님의 사랑과 나눔으로부터 시작된 소중한 만남, 비록 긴 시간의 만남은 아니지만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dail**

다일공동체는
밥퍼 및 빵퍼, 물품전달시
항상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느하라 빈민촌에서 살고 있는 무나 타미는 다일공동체의 결연아동입니다. 무나는 후원회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학업을 지속하여 무사히 SLC(일종의 수학능력시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무나는 네팔 다일공동체 센터에서 매일 봉사도 하는 매우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기에, 모두가 무나의 합격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님의 사랑과 관심은 무나가 큰 꿈을 꾸고, 이루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으로 한 아동의 삶이 건강해지고 꿈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는 것, 후원이 끝나도 아동이 계속해서 발전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주는 것, 나아가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더 넓게 확장되는 것, 이것이 다일공동체의 소망입니다.

무나타미로부터 온 편지

이경희 후원자님께

저는 10학년 SLC 시험을 76%로 통과하였습니다.

후원자님께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제 부모님처럼 후원자님을 존경합니다.

후원자님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후원자님은 제게서 멀리 계시지만 제 마음 속에는 항상 계십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딸,

무나 타미로부터.

for Dear
Lee Kyong hee

I have passed my SLC Examination
76% (76%) with 76% I am very
very thankful to you 😊😊😊

I respect you as my parent because you
made my father a doctor, and come the family in the
name of Lord.

you are for from me but also
you always will be in my heart
Take care of your health
love you
from your daughter
-Muna Thami





“밥퍼에서 꿈퍼로”

꿈다일

꿈다. 소중한 한 생명을

네 꿈은 뭐니?

우리는 이 질문을 어린이들에게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저 슬픔에 찬 눈망울뿐인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조차 모른채 살아가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입니다.

손도 작고 키도 작지만, 하는 일은 어른과 같습니다.
꿈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하루에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어린이들에게 꿈은 현재의 삶에서 그나마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밥퍼센터로 오는 것’ 일지도 모릅니다.

다일은 이 어린이들에게 진짜 꿈을 갖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을 키워가는 어린이를 품는 기쁨을 당신에게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 생명을 품는 일,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균형잡힌 영양식, 의료 혜택, 위생용품
생필품, 교육과 학용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32절



1:1 International Child Sponsorship





이혜진 다일복지재단 홍보전산실 간사

행복의 비밀 나눔

‘나눔’이라는 단어가 쉽게 들리는 요즘이지만
 ‘나눔’을 직접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내 인생, 내 가족이라도 건강하고 어려움 없이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누기 위해 절약하고,
 나누기 위해 사는 이 시대 진정한 사나이와 학교가 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27년의 세월, 다일공동체의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한결같이
 함께 걸어온 데오스중고등학교 강기호 이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강기호 이사장



Q | 데오스중고등학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데오스중고등학교는 대안학교입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구조인데 학생들은 여전히 등급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 합니다. 교실의 폭력성도 문제입니다. 언어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물리적인 폭력도 어른들의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폰이 보편화되면서 게임중독에 이르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데오스중고등학교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세워진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학교가 온실은 아닙니다. 학생들도 온실 속의 초초가 아니지요. 청소년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전체집합이라면 우리는 교집합으로 잇대어져 있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서열화하지 않고, 등급으로 줄을 세우지 않으면서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Q | 자발적으로 다일에 후원하셨다고 들었는데, 후원하신 동기가 있다면요?

제가 다일을 후원하기 시작한 것이 대학원 다닐 때부터니까 아마 25년은 된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는 오웬진 신부님이 만든 꽃동네에 매달 1만원을 보냈는데 그 당시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매달 번 돈이 10~20만원 정도 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생긴 다음에 후원을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핑계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마음먹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Q |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봉사도 어려울 때도 있었을 텐데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생활이 풍요로워서 니룰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기 위해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은 하나님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봉사에 참여한 데오스 학생들

께 드리고, 10분의 8은 아내에게 줍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남을 위해 사용합니다. 일 년 동안 꾸준히 일하고 흑시나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다면 연말에 모두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목적을 모으는데 두지 않고, 주는데 두고 삽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갈릴리 험한 길을 맨발로 걸 으시며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으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살리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삶의 한 부분이라도 그 분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이유라면 이 유가 되겠네요.

Q | 이사장님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희망 없던 사람들과 청소년들이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을 잃었던 사람들의 얼굴에 화사한 웃음을 다시 되찾게 해드리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입니다.

Q | 이사장님께 나눔이란?

저에게 나눔이란 '혼자 먹을 때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눠주기 위해 절약하고 모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나눔을 통해 혼자 먹을 때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을 알게 됩니다.

나눔이 기적입니다. 나에게는 큰 보람과 기쁨이고 누군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저에게 나눔이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DAJL**

>> 다일 장학생들이 사용할 학사를 짓는 모습



롬 윗다를 기억하시나요?

Do you remember...?



지난 5,6월호 다일공동체 소식지 특집 기사에 소개되었던 심장병을 앓고 있는 캄보디아의 6살 아동 롬 윗다를 기억하시나요? 선천성 심장병으로 2010년생인 롬 윗다는 6kg의 작은 체구이며 태어나서 한 번도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고 아직도 분유와 설탕을 섞어 먹으며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이 살고 있는 시엠립의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라며 진료를 해 주지 않고 다른 병원을 찾기에는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형편이기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롬 윗다가 한국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모금이 네이버 기부 포털인 '해피빈'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롬 윗다의 이야기를 접한 신한은행 임직원들은 매일 급여에서 1만원씩을 모은 '신한가족만원나눔기부'를 통해 8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해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소중한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00만원 
신한가족만원나눔기부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롬 윗다의 수술을 위한 준비가 조금씩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비용과 롬 윗다가 한국으로 오기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다일공동체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실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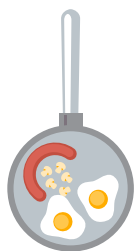
후원문의 다일복지재단 02-2212-8004





CAMBODIA

밥퍼를 부탁해 캄보디아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프놈펜과 시엠립에서 매일 각 40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하여 밥을 짓습니다. 밥퍼에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현지 음식으로 10여 가지 이상의 메뉴로 매일 다른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성으로 만든 한 끼의 식사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어곤 뿌레야 예수(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며 10년째 빈민촌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빈민촌에서는 밥퍼에서 나누는 한 끼의 식사가 이들의 유일한 식사가 됩니다. 그렇기에 다일공동체의 스텝들은 매일 내 가족들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렇기에 매일 새벽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 30분 이상을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받은 음식을 모두 비닐봉투에 담아가는 아이들,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굶고 또 굶어 그릇을 비우는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사랑으로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한끼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는 매일 약 \$350 정도의 비용이 소모되는데 모두 캄보디아와 캄보디아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 가능한 일입니다. 이 밥을 먹고 자란 어린이들이 캄보디아의 미래로 성장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꿈을 실현하며 살아갈길 소망하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항상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으로 굶주림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밥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dail**



작성 및 요리 _ 고 세 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대리

사진 _ 한 서 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간사

캄보디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한국에서도 재료를 구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메뉴

차뜨러써 & 바이삿쭈룩

오이돼지고기볶음 & 돼지고기조림



재료 : 돼지고기 200그램, 오이 중간 사이즈 5개, 실파 조금, 마늘 10알, 새논 고추 5개, 각설탕 5개, 소금, 후추, 굴 소스, 생수



각설탕은 물에 녹여줍니다. 오이는 어슷 썰기로 썰어 소금 두 스푼을 넣고 잘 휘저은 후 10분간 절여주고 마늘과 고추도 잘게 다져줍니다.



찬물에서 고기의 핏물을 빼주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설탕, 마늘, 굴 소스 1스푼, 후추 2스푼을 넣고 버무리 상온에서 잠시 숙성 시킵니다. (밥퍼에는 냉장고가 없어 상온에서 숙성)

* 4, 5 과정에서 사용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고추, 굴 소스 1스푼을 넣고 볶아줍니다. 10분간 절여냈던 오이를 찬물로 잘 씻어 물기를 제거한 뒤 준 비해둔 숙성된 고기와 같이 1-2분간 볶아 후추 2 커피스푼을 뿌려주면 차뜨러써 완성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궈지면 숙성해 놓은 고기를 튀기듯 볶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줍니다. 잘라주면 바이삿쭈룩 완성.



실파를 잘게 썰어 음식 위에 뿌려 식판에 담아주면
오늘의 음식 차뜨러써 & 바이삿쭈룩 완성

성탄절

28TH

거리성탄예배



2015
12/25

11:00 am

밥퍼나눔운동본부

Merry
Christmas

02-2212-8004



낮은 곳에서 열리는 다일공동체의 **28번째** 거리성탄예배

- 이웃과 함께하는 거리성탄예배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지구촌에 밥 굶는 이가 없어야 할 12월 25일,
추운 날씨에 더욱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해 청량리 밥
퍼나눔운동본부에서는 따뜻한 성탄절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다일공동체 "28번째 거리성탄예배"
가 열립니다.

우리 주변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소외된
이웃들이 있기에 예수님의 참 사랑 실천을 위한 진지
나눔과 따뜻한 겨울을 지내실 수 있도록 방한복과 거
울 용품을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날 만큼은 성냥팔이소녀처럼 홀로 외로이 추위에
떨며 고독한 성탄절을 보내는 이가 없기를 간절한 마
음으로 바라며 아기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참사
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리성탄예배 참여 및 후원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요술 같고, 기적 같은

00 초등학교 2학년 수빈이

밥 퍼 나눔
운동본부
소감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TV에서 참 슬픈 광고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집이 몹시 가난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선생님한테 부끄러운 듯이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학교 급식, 남은 것 좀.. 집에 가져가서 동생에게 나눠줘도 될까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참 아팠고, 슬펐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정말로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봉사활동에 참여 하였습니다.

제가 첫 봉사활동을 한 것은 미국 양로원에서 노래를 불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파란 눈의 할머니들 앞에 서니까 너무 떨렸는데 제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들이 “Oh, Great! Thank you, good girl!”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무척 힘이 났습니다. 그때는 봉사활동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내가 기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밥퍼'라는 봉사단체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가난한 분들에게 점심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판에 반찬을 담고, 바닥을 쓸고 닦고...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지만 점심 식사를 하시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나와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힘이 솟아납니다. 그동안 편식을 하는 편이었지만,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항상 감사하며 맛있게 밥 한 공기를 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기쁘게 만드는 요술 같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행복해 진답니다.

봉사를 통하여
얻은 경험은
값으로
매길수 없을 만큼
귀중하였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소감문

THE EAST COMMUNITY

이름 _ 룬스 국적 _ 피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와 함께 한 며칠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큐멘터리나 책을 통하여 가난한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서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 그 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봉사할 수 있어 정말 감사드리고 봉사를 통하여 얻은 경험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였습니다.

끝으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일공동체와 전체 스텝들에게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저도 다일공동체처럼 가난한 이웃을 섬기길 다짐합니다.



>>> 'THE EAST COMMUNITY'는 일본 오이타 순복음 교회 청년부로 8개국의 청년들이 4박 5일 동안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밥퍼 및 예배 사역으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변화를 느낍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니콜라스, 오마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소감문

니콜라스와 오마리는 현재 세로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가정 형편상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쿤두치 채석장을 맴돌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일 다일 호프클래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동생들을 돕고 있으며, 토요일마다 밥퍼 봉사로 구슬땀을 흘리며 변화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일공동체에 감사를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일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다일공동체 역시 사랑합니다.

제가 다일공동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다일공동체를 최선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또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화목하며 사랑으로 섬길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일공동체에서 봉사하는 것이 제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리



저는 오마리 사바니입니다. 가장 먼저 다일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보살펴주시고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일공동체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좋은 태도를 갖게 되었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다일공동체에서 봉사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동료들과 아이디어도 공유하며,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이슬람이지만 저는 크리스천이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전엔 다일공동체가 저를 도와주길 원했지만 이제는 제가 다일공동체를 돕고 싶습니다.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지은이 : R. 핀치스

시 제공 : 최별 (Byeol Ellie Choi)

>>> 기억하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길이 너무 멀어 보이고 어둠이 밀려올 때
모든 일이 다 틀어지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기억하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웃음 짓기 힘들고 기분이 울적할 때
날려고 날개를 펴도 날아오를 수 없을 때
기억하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일을 마치기도 전에 시간은 벌써 다 달아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시간이 다 되어 버릴 때
사소한 일들이 앞을 가로막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기억하라.
사랑하는 이가 있다는 것을.





현 · 장 · 이 · 야 · 기

필리핀

PHILLIPINE



한성희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빠라디 동물원으로 소풍 가는 날

필리핀 다일공동체에서는 책에서만 보던 작은 동물 들인 양, 염소, 조랑말, 거위, 검은 돼지, 토끼, 칠면조 등을 만났습니다. 키 큰 낙타와 뿔이 솟은 덩치 큰 버팔로, 턱을 쪽 내민 낙타의 등에 올라 사진도 찍고, 말도 타보고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었습니다. 손을 물릴까 무서워하면서도 동물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아이들과 함께 보물찾기를 하였습니다. 보물찾기는 한국에서도 소풍의 마지막을 장식할 만큼 기대가 큰데 필리핀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선물도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보물찾기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이 게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롯데 선생님의 따라로그 통역으로 게임의 설명을 듣고 이것 저것 숨겨진 숫자카드를 찾아 하나 둘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4명의 아이들이 찾지 못해 울먹이는 표정이 어찌나 귀여운지 여유분으로 가지고 간 숫자카드를 아이들 몰래 더 숨기고 찾도록 하였습니다. 이내 밝아진 아이들과 숫자 하나하나를 부르며 선물을 나누어 주는데 똑같은 선물인데도 자신의 숫자가 언제 불러질지 몰라 긴장하는 모습을 부모님들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리하고 내려오면서 벌들이 사는 곳도 보고 나비들이 사는 곳에 들러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아이들 모두가 곤히 잠들만큼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이 소풍 가는 날처럼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dail**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네팔 NEPAL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밥부터 나누는 성탄절 축제

네팔은 10년 만에 드디어 헌법을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힌두교를 국교로 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자유공화국이 되었지만 왕당파와 극렬 힌두주의자들은 이번 헌법을 기회로 삼아 다시 네팔을 힌두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으나 네팔은 결국 자유공화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인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에는 네팔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네팔의 대지진과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중국으로 이어지는 길이 막혀버린 상태에서 이번 인도의 금지조치는 네팔의 모든 것을 중단 상태로 빼뜨렸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대부분의 차들이 길에서 멈추어 섰고, 가스가 떨어져서 식당들이 문을 닫고, 물을 운반하지 못해 먹고 씻는 물조차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진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네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걸어서 다니면 된다며 인도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힌두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힌두 사원 <파슈파티나트> 이 네팔에 있고, 국민의 87%가 힌두교를 믿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전히 3억 3천만 개의 신을 믿고 있고, 카스트의 최고 계급인 브라만은 신이 되기 직전의 존재라고 믿는 힌두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네팔 다일공동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어 빈민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성탄절 축제를 준비합니다. 지진의 여파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치고, 두려움과 슬픔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말구유에서 태어나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 삼으셨던 예수님처럼 나눔과 섬김을 통해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다일공동체의 정신으로 밥부터 나누며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성탄절이 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밥 한끼 아껴서 네팔 성탄절의 밥값으로 사랑을 전해 주시고, 커피 한 잔 아껴서 네팔에 성탄절 선물을 전해주시면 네팔의 많은 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dajil](#)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밥퍼에서 꿈퍼로

10년 전에 세워져 굶주린 아이들에게 쌀국수를 끓여주면서부터 시작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밥퍼를 시작으로 빵퍼, 물퍼에 이어 클리닉, 유치원등 교육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자립지원사업, 주일예배 및 성경공부 등 많은 사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밥퍼에서 꿈퍼로의 사명을 아름답게 실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밥퍼를 시작한지 10년 만에 줄서서 밥을 먹던 아이들 중에서 5명이 꿈에서만 그려보던 대학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3명은 2008년부터 시작된 캄보디아다일중창단으로 2010년에 KBS 방송국 초청으로 생방송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었다며 모두가 행복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 뿐, 당장 끼니를 해결할 형편이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및 학비는 가정의 짐이 되어 부모님들은 대학 입학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에 가겠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70달러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캄보디아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DAIL**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855-78-708-080



소피아에게서 온 편지

최일도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시엠희프놈끄라움 마을에 살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저는 어린시절부터 다일공동체를 통해 아동결연 후원을 받아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꿈에나 그리던 대학교도 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꿈은 경찰이 되는 것이었어요. 삼촌을 따라 경찰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는데 다일공동체가 마을에 생기고 나서 제 삶의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다일공동체는 매일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약을 주며 공부를 시켜 주었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오랜세월 밥을 먹었고 주일에는 밥퍼에서 친구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일중창단도 가입하게 되어 노래를 배우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 꿈도 꾸지 못할 한국방문과 KBS에 출연한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일공동체가 밥퍼, 다일천사병원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보며 다일공동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매일 찾아와 밥을 먹고 많은 지원을 받는 친구들을 보고 특별히 다일 천사클리닉을 보며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호사가 되어 더 많은 어린이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은 대학공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싶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닌 연약한 이웃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여 꼭 꿈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 건강검진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호프클래스 학생들의 건강검진

탄자니아 다일공동체가 사역하는 쿤두치 빈민촌의 주민들은 대부분 채석장에서 돌을 깨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 늘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온 마을을 날아다니는 미세한 먼지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고, 감기도 쉽게 걸립니다. 영양도 불충분한데 환경도 좋지 않으니 말라리아에도 자주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심각한 문제인 에이즈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일호프클래스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위생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손 씻기는 기본이고, 점심식사 후에는 꼭 양치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양치질을 못합니다. 그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치아 사이를

청소할 뿐입니다. 그러한 탓에 탄자니아 아이들은 양치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탄자니아 스텝들은 아이들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에이즈, 장티푸스 등을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에이즈가 발견된 아이는 없었고, 3명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환경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공부하며 성장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방과후 영어교실

미주 다일공동체 대외협력이사로 수고하시는 이종호 이사님이 협력선교사로 오셔서 호프클래스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면서 방과후 영어교실도 시작 하셨습니다. 22명을 선발하여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의 관심도 아주 대단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종호 선교사님은 이제 6개월 간의 단기선교사 사명을 마치시고 오는 12월 12일 미국 애틀란타로 돌아가십니다.

이종호 선교사님의 뒤를 이을 단기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탄자니아 다일공동체를 섬겨주실 분은 한국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이나 미주다일공동체(+1-770-813-0899), 또는 탄자니아 다일공동체(+255-755-154-246)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ail**

>> 방과후 영어교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755-154-246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부원장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풍요의 계절 가을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풍성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가 봅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베트남에 찾아온 온정의 릴레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 첫 번째 릴레이 주인공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롯데리아'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롯데리아에서 후원 받은 바우처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햄버거와 치킨을 준비하여 구찌에 있는 고아원과 빙짜잉에 있는 아가페교회 그리고 빈흥화 밥퍼를 방문하시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치킨과 햄버거를 풍족하게 전달하여 모두가 맛있게 먹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합니다.

함께라서 따뜻한 내일이 기대됩니다.

한국에 '송편'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월병'이 있습니다. 월병은 베트남어로 Banh Trung Thu(반 중투)라고 하고 영어로는 Moon Cake라고 부르며 '중추에 먹는 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 추석의

풍습은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마음이 깃든 선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런 베트남 추석 풍습을 알고 있는 참조은광성교회에서 밥퍼에서 밥을 먹는 아이들과 밥퍼 주변에 거주하는 아이들 120여 명을 초청하여 추석의 주인공인 아이들에게 월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에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급식비와 봉사를 하고 있는 참조은광성교회 그리고 밥퍼를 물심양면으로 섬기며 매월 첫째 주 수요일마다 급식비와 함께 봉사를 하고 있는 사이공드림교회의 후원으로 밥퍼와 빙짜잉 지역의 아가페교회에 월병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Moon Cake라는 의미처럼 보름달 같은 월병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온정의 릴레이가 이어진 베트남의 추석이었습니다. 베트남에 이어지는 사랑의 릴레이 소식을 바다 건너 한국, 한국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전해드릴 수 있어 참 기쁩니다.

365일 우리가 선택한 나눔

베트남에 전해지는 따뜻한 소식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의료시설이 취약한 낯선 산림보호지역의 주민들의 의료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곳 대부분의 가정은 나무를 관리하는 지역주민으로 143가정이 배로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 구찌고아원_햄버거와 치킨을 선물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 아가페교회_월병을 선물받고 '사이공드림교회에 감사인사를 하는 모습



거주하고 있습니다. 산림 보호 지역이다 보니 사람이 거주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하수도 시설과 전기 그리고 병원 같은 의료시설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 곳의 지역 주민들은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 욕지에서 생수를 공급 받거나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너 산림보호지역의 마을주민들은 물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정화시설이 없어 잦은 배탈 등 건강에 취약합니다.



>> 검저의료사역_진료모습

건저 산림보호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베트남 내의 대표 기업인 Thanh Cong기업에서는 '행복 나눔 Medical' 건너 의료사업을 기획하여 200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의약품 그리고 구급의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밥퍼 급식비와 봉사료 도움을 주시는 Thanh Cong 기업과 Thanh Cong기업에서 운영하는 Thanh Cong 병원의 도움으로 건너 산림보호지역 주민들의 건강은 365일 맑음입니다. **DaIL**

베트남 다일공동체

+84-12-6473-8291

미주 U.S.A



김고운 미주 다일공동체 실장

사랑이 가득한 편지

10월 첫날 미주 다일공동체로 사랑이 가득 담긴 후원자분의 편지 2통이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필리핀 다일공동체 아동 Lyza Fiona를 결연하고 계신 미주 다일공동체 후원자이신 성택(Taek Sung)님께서 매년 본인의 결연 아동을 위한 성탄 편지와 아동 선물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늦지 않게 결연아동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랑이 가득한 편지와 함께 아동 성탄 선물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의 손주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함께 전해 달라며 사진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는 본인의 손주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함께 전해 달라며 사진도 한 장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 편지도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편지와 함께 밥퍼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분의 편지였습니다. 올해 팔순을 맞으신 권사님께서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몸으로 혼자 외로이 노인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매년 조금씩 절약하여 모은 돈을 어김없이 미주 다일공동체의 사역을 위해 써달라며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의 간곡한 부탁에도 무명으로 해달라며 편지조차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미주 다일공동체로 전달된 2통의 후원자분들의 편지가 아침부터 미주 다일공동체 가족들의 마음을 몽클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아무 보상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전해주시는 후원자분들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미주 다일공동체는 끊임없이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DaIL**

미주 다일공동체

+1-770-813-0899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4명의 졸업생

지난 9월에 중국 다일공동체에서 성장한 형님, 오빠들이 실습을 마치고 독립해 사회로 나가는 길을 축복하는 송별회가 있었습니다. 늘 떠나보내는 마음은 섭섭하지만 잘 성장해준 형님들이 눈물 나게 멋지고 고맙기만 합니다. 미용사 야오쯔양과 왕 파이버, 제빵사 왕하 이탁오 그리고 창사 이공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마에 형님까지 4명의 멋진 다일의 아들들의 나아가는 앞길을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 특별히 이들의 독립을 위해 6개월의 하숙비를 지원해주신 강남대학교 조준영 교수님과 천안의 예은 피아노 황지현 집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4명의 다일졸업생

추석을 함께한 리빙웰 치과 김현철 원장님

이번 추석은 일산 리빙웰 치과 봉사팀과 보냈습니다. 월병을 먹으며 추석을 간소하게 보내는 중국 동북의 풍습에 따라 중단일 온 가족도 월병을 먹으며 추석 아침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귀한 추석 연휴를 이용해 훈춘시의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일산 리빙웰 치과 봉사팀과 김현철 원장님은 2011년부터 매년 두 차례 6개월마다 정기 방문하여 다일 어린 이집과 훈춘시의 이웃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는 많은 열매를 거둬 감동받은 현지의 치과들과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 모자이크 교회

모자이크 교회 방문후원 (담임목사 박종근 목사)

매년 몇 차례 중국에 오시면 잊지 않고 꼭 찾아주시는 모자이크교회 박종근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이번에도 중국 다일공동체를 방문해 주시고 후원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오실 때에는 한국의 유명 메이커 점퍼와 겨울 파카를 한 아름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고등학생,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멋진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애민 양로원 정기 방문 봉사

석 달에 한 번은 중국 다일공동체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올해 봄부터 양로원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로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르신들께서 심은 감자들을 비가 오기 전에 캐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부터 밭으로 달려가 감자를 급하게 캐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감자들을 사수해야 했기에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제법 진지하게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역시 사랑은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감자를 캐서 운반하느라 비록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비를 맞으며 아이들의 미소는 더욱 빛이 났고 수고한 아이들을 위해 양로원 할머니들께서 찜주신 옥수수 두 배로 맛있었습니다. **DaIL**



>> 양로원 봉사

중국 다일공동체 ☎ +86-433-753-8004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지난 시절 다시올 수 없다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류시0님은 나이 6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 생활을 하시다가 3년전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우측편 마비와 언어장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뇌경색 증상은 손상된 뇌의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운동마비, 감각장애, 실어증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류시0님의 경우 오른팔은 마비가 되어 쓸 수가 없고 말을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보탬은 되지 못하고 짐만 된다고 생각해서 무작정 집을 나오셨습니다.

집을 나와 갈 곳 없이 이곳 저곳을 방황하시다가 길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일공동체 밥퍼 나눔운동본부에서 끼니를 해결해오셨습니다. 거리를 떠돌다 보니 몸은 더 악화되었고 다일천사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2014년 10월 본원에 입소하여 다일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현재까지 생활하고 계십니다. 입소 당시 류시0님은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건강보험도 상실된 상태였는데, 다일작은천국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재등록 및 건강보험도 회복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할 때는 외로움과 슬픔으로 인해 술과 담배를 자주했지만 입소 후에는 다일 직원들의 도움과 굳은 의지로 금연과 금주를 실천하여 건강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몸이 굳어지기 이전의 모습으로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통한의 한숨만 내쉬던 삶에서 이제는 실제로 건강을 되찾기 위하여 꾸준히 몸을 움직이도록 애쓰며 뇌세포를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 재활 의지를 보이는 입소자를 위해 다일작은천국에서는 최대한 지원방안

을 고심하던 차,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별 재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병원 내에서 ‘세탁도우미’를 맡게 되어 월 38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재활 요양병원에서 주 1회 언어 치료와 글쓰기 연습도 하고 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일작은천국은 점점 굳어가는 몸 때문에 재활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류시0님을 위해 사랑의 공동 모금회에서 주최하는 7월의 행복죽식거래소에 환자의 사연을 신청하여 10월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거동이 어려운 관계로 브레인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며 보다 전문적으로 재활운동, 인지치료, 언어치료를 6개월동안 받도록 하였습니다. 몸이 회복하는데 시기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일의 직원들과 후원자들의 마음이 하나되어 몸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일**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 02-2213-8004



>> 재활치료를 담당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밥퍼 BABFOR

이지현 밥퍼나눔운동본부 본부장

밥퍼에 봉사하러 온 학생들이 한 봉지씩 들고 온 한 움큼의 봉지쌀들. 금 배추라 불리던 시절에 배추 한 트럭을 친히 몰고 오셔서 주시고 가신 천사 분. 매해 겨울이면 제주도에서 밥퍼의 어르신들에게 드릴 쿨을 11월부터 1월까지 매주 50박스씩 보내주시는 경흥농장. 이렇게 자신의 것을 십시일반 기쁨으로 내어 주시는 천사들과 누구인지도 모르는 손길로 섬겨주시는 숨은 기부자들로 인하여 27년 동안 700만 그릇 이상 밥을 나눌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온 것입니다.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남에게 나눌 줄 아는 나눔 바보들이 있기에 오늘도 밥퍼의 어르신들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준다는 것은 내 삶의 부분을 주는 것과 같다.”라는 말처럼 밥퍼에는 자신의 남은 삶을 귀하게 내어 주시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옥함선교회 회장님이신 임화자 권사님은 2007년부터 밥퍼와 함께 한 봉사자이십니다. 몇 년 전 병으로 온몸이 움푹달락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어 의사도 ‘어쩔 수 없다. 포기하자.’라는 통보

를 받았지만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고 기적처럼 회복되어 다시금 밥퍼에 봉사를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사님은 얼마 전에 대장암 선고를 받으셨고 이번에도 온몸의 아픈 부위를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큰 일을 두 번이나 겪으면서도 여전히 아픈 내색 한번 얹으시고 얹으시고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로 터진 밥퍼 앞치마를 바느질하십니다.

자신의 힘을 다해 이웃을 돕고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시는 권사님. 돈보기를 끼시고 열심히 실을 바늘에 꿰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며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샘솟듯 올라오는 감동에 한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 밥퍼 앞치마를 수선하시는 옥함선교회 회장 임화자 권사

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시간을 들이며 보상 없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회는 바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리석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이경희 할아버지, 임화자 권사님 같은 착한 바보, 나눔 바보, 봉사 바보들이 늘어갈수록 세상은 더욱 밥맛이 나고 살맛이 나겠지요! 저는 오늘도 이러한 사랑 바보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나눔 바보, 봉사 바보, 사랑 바보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 밥퍼에 쌀 한봉지씩을 직접 들고온 학생들

**밥퍼 방문한 리버트 주한 미국 대사,
“우리 같이 갑시다!”**

땀 흘리시는 자원봉사 현장 '밥퍼'에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님이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깜짝 방문을 하셔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밥퍼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 밥을 퍼드리며 어르신들 한분 한분에게 맑고 밝은 웃음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겸손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해 주시니 모든 어르신들과 노숙인 형제들도 "리퍼트 대사가 최고야!!" "역대 대사들 중에 제일 좋아!!" 를 외쳤습니다.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다며 낮은 곳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 인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라이스 팟 릴레이'에 동참해 주시면서 크고 또렷한 한국어로 "우리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라고 하자 듣는 모두에게 큰 감동이 되었는지 여기 저기서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테러당한 얼굴엔 아직도 상처 자국이 또렷한데 그때도 우리 함께 가야 한다고 하더니 밥퍼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니 밥퍼에 온 가족들 모두가 다같이 외쳤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우리 힘 모아 뜻 모아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같이 갑시다!!



>> 밥퍼 자원봉사 실천현장



>> 조영진감독과 악수를 나누는 리버트 대사



>> 다일공동체 방문 소감을 전하는 모습



>> 밥퍼 봉사자로 주방을 가득채운 UMC

“감리교회 연합회 동역자님들, 우리 다시 만나요!”

매해 가을이 되면 저 멀리 미국에서 한국의 밥퍼와 천사병원으로 자원봉사와 탐방을 오시는 감리교 목회자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감리교회 연합회 (UMC)에 소속된 조영진 감독님과 감리사님들, 목회하시는 동역자들입니다. 지난 해 보았던 반가운 얼굴도 있지만, 한국이 처음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늘 인솔하여 오시는 조영진 감독님과 서른 세 분의 미국 목사님들이 밥퍼로 들어서니 밥퍼 주방과 홀이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가볼 곳을 텐데 다른 곳은 안 가볼 지라도 밥퍼와 천사병원은 나눔과 섬김이 있는 기적의 현장이요, 생동감이 넘치는 복음자리라며 벌써 4년째 계속 찾아오십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다일공동체 사역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찌나 질문들이 많으신지 정말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도 감동이 되고 큰 도전이 된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시작합니다.”라는 다일의 영성과 정신에 많은 도전을 받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작별 인사를 하자 어느새 배웠는지 한국어로 “우리 다시 만나요!!” 답례하시는데 정말 서로 헤어지기가 싫을 정도였습니다! 각자의 고국에서 복음을 위해 애쓰다가 내년엔 다시 밥퍼를 방문하여 만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호식이 두마리치킨 900호점 돌파를 축하하며!

호식이 두마리치킨이 가맹점 900호점을 오픈하면서 사랑의 쌀 900포대(9톤)를 밥퍼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다일공동체 생명의 쌀 이어가기 운동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이 같은 나눔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소원하시는 최호식 회장의 말씀이 매우 진정성 있게 다가온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에도 800호 가맹점 돌파를 기념해서 800포대의 쌀을 기증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100호점 돌파 때마다 밥퍼에 쌀을 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오늘 보내온 쌀은 경북 의성에서 하루 전날 도정한 최상품인데 소외된 이웃을 위해 최고의 것으로 섬기는 마음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모든 무의탁 노인들과 노숙인들에게 방금 튀겨낸 맛있는 치킨을 대접해 주시고 밥을 퍼 드린 후 최호식 회장은 모든 기업은 상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동안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금 되돌려 드려야 하며, 우리 역시 한 번의 지나가는 행사가 아

닌 지속적으로 소외계층과 더욱 소통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사가 더욱 커갈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회사는 신뢰를, 임직원은 사랑의 나눔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최호식 회장과 호식이 두마리치킨 모든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온 맘다해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DAIL



밥퍼나눔운동본부

☎ 02-2214-0365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I . am . a . happy . volunteer

밥 퍼



제주도 성안교회 | 제주도에 있는 성안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서울로 비전트립을 오게 되어 밥퍼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방문인데요, 비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나눔과 섬김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었답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임에도 매해마다 밥퍼를 찾아 오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영육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모습 기대할게요!



한일이화 | 한일이화는 늘 매달 정기 봉사를 하는 밥퍼의 가족입니다. 이번에는 부회장님의 어린 따님도 함께 밥퍼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따님이 아직 어려서 힘든 봉사를 잘 해 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곳곳하게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또 밥퍼에 쌀 후원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일이화에서 쌀을 100kg도 아니고 1,000kg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밥퍼가족들의 마음이 참 든든해졌습니다. 한일이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관심으로 언제나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트로닉 | 벌써 4년째 함께하고 있는 바이오트로닉 임직원분들께서 오셨습니다. 분기마다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든든한 동역자이기에 이 날 밥퍼 식구들은 아주 든든했습니다. 특별히 사장님까지 오셔서 직원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사기를 불어넣어주시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봉사하는 모습과 목소리를 들으니 사장님 출마하시려고 되겠어요^^ 앞으로도 꼭 함께해요!



로터리클럽 | 로터리클럽에서는 장충식총재님, 이명수회장님, 김인수총무님 외 로터리클럽 회원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눔의 기쁨과 행복은 나눠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누려 왔다가 얻고 간대!"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의 구호를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섬김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베트남



POSCO VHPS | 글로벌 가공법인으로 우뚝 선 POSCO VHPC(POSCO-Vietnam Hochiminh Processing Center)는 업계의 성장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월 넷째주 화요일마다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준비한 밥을 정성스레 대접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POSCO VHPC 나눔 활동은 앞으로도 쭉욱~ 계속 됩니다!!



VEGAS | 밥퍼의 일이라면 두 팔 걷고 힘을 모아주는 VEGSA는 매월 첫째주 목요일마다 밥퍼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 구정 때는 쌀과 각종 조미료를 준비하여 밥퍼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렸으며, 6월 2일 '어린이날'에는 과자와 공책, 연필을 준비하여 밥퍼를 찾는 아이들에게 행복을 선물하였습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다시금 느껴 봅니다.



미주

섬기는 손길을 찾아서- 나도 봉사자! | 2주전부터 매일 미주 다일공동체를 찾아와 청소봉사를 감당해 주고 있는 강윤지(kayleigh kang) 학생을 소개합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고 난 후에 엄마와 함께 미주 다일공동체를 찾아와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윤지 학생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쓸어주고 닦아주니, 사무실 환경도 좋아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졌습니다. 성실하고 착실하게 봉사를 해준 강윤지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제일교회 | 'THE EAST COMMUNITY'는 일본 오이타 순복음교회 청글로벌 가공법인으로 우뚝 선 POSCO VHPC(POSCO-Vietnam Hochiminh Processing Center)는 업계의 성장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월 넷째주 화요일마다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준비한 밥을 정성스레 대접하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POSCO VHPC 나눔 활동은 앞으로도 쭉욱~ 계속 됩니다!!



The East communicarton | 'THE EAST COMMUNITY'는 일본 오이타 순복음교회 청년부로 8개국(보스니아, 사이판, 인도네시아, 일본, 통가, 피지, 한국, 호주)의 청년들이 4박 5일 동안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 밥퍼 및 예배 사역으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지뢰피해자마을인 쓰록부억 마을에서 이동 밥퍼를 하여 3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실히 섬겨주신 모습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p>신규후원회원 15.08.15~10.15</p>	<p>(주)비엔피코리아, 강병철, 강상진, 강순진, 강윤하, 강정숙, 강지혜, 강진, 강현희, 강혜란, 강혜주, 구새롬, 구정아, 국군중앙교회배봉원, 권영순, 김관형, 김광휘, 김국태, 김근순, 김금자(고김군호), 김기현, 김기홍, 김나경, 김남지, 김대성(이레션), 김동구, 김두옥창로, 김영자, 김미성, 김부레, 김새롬, 김선미, 김선우, 김성조, 김수경, 김연옥, 김영선, 김영훈, 김예지(김정수), 김우영, 김원동(홀플러스), 김원호(한계수), 김은수, 김은아, 김인하, 김일천, 김장후, 김정복, 김종미, 김주경, 김주용(석성초), 김지혜(손원영), 김지훈, 김진혁, 김진호가정, 김진희, 김차희, 김찬용, 김초원, 김태환, 김해인, 김향란, 김혜자(박영선), 김홍근, 꿈꾸것과운전의리, 남궁수진, 남기성, 남상수, 남한나, 노갑렬, 노민전, 노현애, 대전대덕교화유년부, 덕양중학교, 류제웅, 마건창, 맹두진, 민영수, 민윤기, 박동열, 박동훈, 박상진, 박성욱, 박성환, 박시현, 박영철, 박원순, 박인식, 박재현, 박정화, 박종선, 박종철, 박준서, 박천유, 박청숙, 박현철, 박혜원, 박혜주, 반승아, 백관기, 백정현, 변해심, 부천덕산중3-12(저), 뽕퍼넬팔, 서강빈, 서란, 서울산업공업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재덕, 성경식품, 성영재, 성유진, 손기선, 손정민, 손정인, 손지희, 손하영, 송병철, 송수연, 송지혜, 송형성, 순복음교회성도, 송실대통일재단, 신명호, 신반포교회, 신선희, 신성용(신민승), 신준현, 신진오, 신혜원, 아이들등록금, 안정주, 양청자, 엄혜정, 엘지히타치위터솔루션 주식회사, 염혜인, 영옥, 오성욱, 오송이, 오송원, 오원석, 오직상패, 유경화, 유니스장학금, 유성모(송현수), 유익상, 윤민선, 윤병경, 윤석진, 윤승진, 윤옥자, 윤인노, 윤인순, 은혜로사는교회, 이강찬, 이경민, 이기남, 이도훈, 이동우, 이명수, 이명희, 이승연, 이아람, 이영환, 이예지, 이완길, 이완형, 이용섭, 이유리, 이은혜, 이정민, 이정선, 이정선, 이정욱, 이주연, 이주열(이미은), 이차술, 이창재, 이후청, 임근애, 임보현, 임성희, 임세은, 작은마을, 장동화, 장명자, 장예은, 장윤정, 장현(저금통), 장홍국, 전남골악교회, 전영애, 정경자, 정연호, 정우승, 정유진, 정종백, 정중기, 정지현, 정태중, 정형진, 조박승, 조성연, 조순아, 조시연, 조아라, 조영혜, 조윤, 조윤희(저금통), 조정희, 조진우, 지정우, 진민혁, 진한나, 차미선, 차승주, 차승훈, 최경미, 최경자, 최산, 최영란, 최은석, 최지은, 최희중, 퀴네앤드나겔(주), 필다일, 하지은, 한국보건사회연구, 한국오라클정재덕, 한상훈, 한성로타리클럽, 한승철, 한우리, 한종기(최문정), 한해연, 허순규, 허승진, 허희하의 수하사랑, 홍지표, 홍현아, 황지영</p>
<p>밥퍼나눔 운동본부 15.08.16~10.15</p>	<p>후원물품 / 김성복,오현주 쌀 20kg, 김종구 쌀 40kg, 동두천상회 열무 100단, 두산정보통신 쌀 200kg, 드림재단 빵 7200개, 무명 배추 100포기,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임 흑미, 찹쌀 30kg, 박종현 오이지 17통, 북부지방검찰청 쌀800kg, 굴 5박스, 비엔피코리아 물컵 1200개, 삼오종합식품 간장 1통, 서울우유 우유 4320개, 석춘자 쌀 30kg, 성경식품 김 78박스 외, 손석오 쌀 20kg, 실상선원(성환스님) 쌀 100kg, 엑시스커뮤니케이션즈코리아 쌀 180kg, 염혜인 쌀 220kg, 오현주 쌀 100kg, 임상병리사협회 쌀 200kg, 정영자 김치 3통, ㈜에스씨코리아 도라야키빵,밀크티 800개, 청량리 롯데백화점 테이블6개 의자 60개, 한국일오삼 닭 248마리, 한일이화 쌀 1000kg, 한촌설렁탕 닭 3000마리, 육수 400kg, 김치 450kg</p>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15.08.15~10.15</p>	<p>후원금 / 국군중앙교회, 박혜숙, 부영상회 씨제이프레시웨이, 조용근 후원물품 / 게스트하우스(흰죽 20박스), 김성권시인(시집 50권), 서노협(의류 및 마스크), 양유화(이동 식변기 및 목욕의자)</p>
<p>캄보디아 다일공동체 15.08.15~10.15</p>	<p>후원금 / 고인화, 기아대책 옥천지역회, 김금선,김정순,박행완,권정선,김인주,김윤희,김미덕,선진아, 박승제, 나눔상담교회 이수용, 노브야, 명노현, 므이, 민평기, 박진희, 보은군새마을회, 부산초량교회, 부산평화로운교회, 세움의감리교회, 아주그룹, 안양감리교회, 양정주, 옥도교회, 이화여대부속교회, 일본 오이타 순복음교회, 증평군자원봉사센터, 쟈니, 최인선, 충북영동군이장협의회, 코리아트래블 여행팀, 프놈펜제일교회, 하나투어 여행팀, 하나투어 호남사업부 (선진아, 한지영, 양현, 최하진), 한마음여행사 의료봉사팀, 황성애, 황채순</p> <p>후원물품 / 그린투어 여행팀(의류), 박준숙(의류), 여행시장 여행팀(신발, 생필품 외), 오이타 순복음교회(의류), 의정부 광명교회(의약품, 간식 외), 증평군자원봉사센터(의류, 간식 외), 지천농협임원(의류, 장난감), 최하진(의약품), 코리아트래블 여행팀(의류, 생필품 외), 톤레샵 카누체험(쌀), 하나투어 여행팀(간식, 학용품 외)</p>
<p>중국 다일공동체 15.08.15~10.15</p>	<p>후원금 / 김미진(헨즈커피), 김성재(Obey&Praise), 모자이크 교회(담임목사 박종근, 민경식(북경), 박교진(샌프란시스코-왕조선 대학학비), 연길 사랑으로 가는길, 포스코현대국제물류유한공사(법인장연제성), 허에스더(파주), 훈춘 시위원회, 훈춘시 교육국</p> <p>후원물품 / 권윤경(월 4회 간식지원), 두만강식품 유한공사(국수2B), 무지개 애심협회(신발, 월병, 피자빵, 김), 영광제빵(빵1B), 일심식품 유한공사(빵2B, 옥수수국수1B), 포스코 현대 국제 물류 유한공사(쌀, 우유, 초코파이)</p>
<p>탄자니아 다일공동체 15.08.15~10.15</p>	<p>후원금 / 방옥란, 이창엽, 탄자니아하인교회, 정비학,</p> <p>후원물품 / 주미국대사관봉사팀(칠판2개), 이성자(연필200자루, 지우개60개, 연필깎이3개), 이화용,송미아(비타민5통, 사탕2봉지, 라면2박스)</p>
<p>베트남 다일공동체 15.08.15~10.15</p>	<p>후원금 / A PLUS, DAEWOO, INTERNATIONAL, LOTTERIA, MAX VINA, NAHAL, ORION, POSCO P&S, POSCO VHPC, POSCO VIETNAM, POSCO VIETNAM HOLDINGS, THANH CONG, VEGAS, 기업은행, 김경중님(U.E.C원장), 김경중원장(U.E.C), 닥터카(고갑순대표), 대장금, 모금함,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오태민, 이정자 권사님, 참조은광성교회, 캐나다다일공동체, 호치민중앙교회</p> <p>후원물품 / POSCO ICT(쌀20kg, 바나나), POSCO VIETNAM(빵20개), Sweet Factory(3,310개), THANH CONG(바나나), VEGAS(라면5box, 우유3box), 사이공드림교회(라면9box, 우유6box), 참조은광성교회(용과4box), 통큰소(과자150set, 백숙30마리)</p>
<p>네팔 다일공동체 15.08.15~10.15</p>	<p>후원금 / 김연미, 김특선, 네팔예수전도단팀, 수원영락교회팀</p> <p>후원물품 /한주방 수납장(김특선님, 김연미님)</p>
<p>필리핀 다일공동체 15.08.15~10.15</p>	<p>후원금 / 서울동노회 세계선교부</p> <p>후원물품 / 박성민목사님 부부 구충제 300개</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 아동과 결연을 하시면 결연 아동의 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위한 캠페인입니다.(36,500원, 365,000원, 3,650,000원)	
화해의 밥 운동	화해의 밥 나누기 캠페인은 작은 갈등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나부터 먼저 화해의 밥을 함께 나누는 운동입니다.	
다일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나눔 계좌	외환은행 131-22-00800-7 국민은행 010-01-0619-487
	만원의 행복	외환은행 131-22-00892-9 하나은행 158-910001-02004
	생쌀이 운동(Rice Pot Relay)	국민은행 467737-01-002291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생쌀이운동)
	화해의 밥 운동	KEB하나 158-910009-61204 다일복지재단 국민은행 467701-01-275676 다일복지재단(B.P.M)
	밥퍼나눔운동본부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설곡산다일공동체	국민은행 010901-04-064419
	다일천사병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다일작은천국	국민은행 467701-01-224504
	다일평화의 마을	국민은행 010-01-0619-487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미주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053115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 13542
Inst. No : 004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복지재단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니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다일공동체

12471 경기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Tel. 031-585-2004

다일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78-708-080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78-708-080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White House No 10

Dar Villa Plot No. 2, Block D, Low Density Msasani Village,
Dar es Salaam, Tanzania
Tel. +255-755-154-246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12-6473-8291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416-824-4831

다일카카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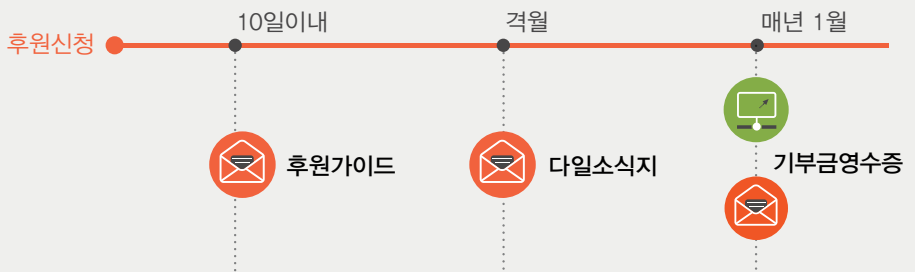
후원신청안내

여러분이 건네는 진심어린 마음은 어린이들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좀 더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나눔회원 서비스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만원의 행복 일대일아동결연 기타
월 1만원 _____구좌 월 3만원 _____명 월 _____원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다일레거시10(유산기부) 기타 _____원

재능기부

- 영문 통/번역(한->영) 디자인/영상 기타 _____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연락처 _____ SMS수신동의 이메일 _____ Email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수신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희망일 5일 15일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MERRY CHRISTMAS



보내시는 분

□	□	□	-	□	□	□
---	---	---	---	---	---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복지재단 6층
후원안내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밥퍼나눔 최일도 목사와 함께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다일영성생활수련

힐링, 여행, 다일영성생활수련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울증, 중독, 가출, 자살, 가정불화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부부, CEO, 교수, 목사, 정치인, 연예인 등
각 분야의 사람들과 가정을 치유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류승범[영화배우]

“다일 수련을 통해 천국의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을 새롭게 체험한
저에게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일정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169기 12월 14일 ~ 18일(4박 5일)

등록안내

-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 수련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전 화 031 585 2004, 010 6375 8004
홈페이지 www.dail.org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다일공동체)

후원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복지재단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작성하신 후원신청서의 사진을 다일복지재단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과 카카오톡 친구되기

- 1.ID로 등록: dailwf
- 2.QR코드로 등록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